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이희호 여사와 승리제단의 인연 1997년 대선 당시 에피소드

전 퍼스트레이디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로 운명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여성운동 1세대로서 이름이 높았던 분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희호 여사와 승리제단은 조금 인연이 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연관된 인연이다. 그렇다고 종교문제는 아니다. 두루 아시다시피 김대중은 카톨릭 교인이고 이 여사는 개신교 신도로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아주 많이 다르다.

종교가 다른 김대중 선생과 이희호 여사

김대중은 장면 총리의 권유로 카톨릭에 입문하였는데 그 동기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갖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그는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납치되어 일본으로 향하던 중 수장되기 직전 아직 자신이 할 일이 많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자 예수가 나타나고 한다. 예수가 나타난 이후 극적으로 자신이 수장되지 않았다고 하며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도 예수의 부활신앙을 고백하였으니 형식적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특히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의 케치프레이즈를 볼 때 양심에 따라 살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기나긴 고행을 당한 점,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

한편 이희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활동에 열심을 낸 케이스다. 이화여고, 스캐릿(Scarritt) 대학을 비롯하여 거의 감리교와 관련된 학교를 다녔으며 미국에 유학하여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YWCA



김대중과 이희호(사진 좌 출처:연합뉴스) 이희호 여사가 용포를 받고 써준 내용(사진 우)

에서 여성운동을 한 1세대 여성운동의 간판이다.

김대중의 정치역정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대한 항거로서 지난 한 길이었으며 198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치를 떠났다가 다시 컴백하여 1997년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당시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유세를 마치고 고향을 기다릴 때에 조희성님이 승리제단 간부들을 김 선생의 자택으로 보내 초조할 대로 초조한 김대중에게 당신을 구세주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용포를 받은 이희호 여사는 용은 마귀라고 질색해

다음은 김상욱 전 신도회장의 회고이다.

“선거 하루 전날인 1997년 12월 17일 승리제단 간부 몇 명과 함께 새벽 4시경에 출발하여 일산의 김대중 후보의 자택을 방문했다. 갈 때에 황금빛 비단 위에 곱들여진 용 한 마리를 황금으로 수를 놓고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을 경축드립니다”라고 수를 놓은 용포를 가지고 갔다.

일산에 도착을 했더니 거실에 마스크

를 통하여 낮이 익은 면면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조금 기다리고 있었더니 2층에서 김대중 후보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와서 반가이 맞아 주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에게 용포를 내놓았다. 그랬더니 이희호 여사는 “어휴. 용은 마귀라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질색을 한다. 이희호 여사는 감리교인이다. 그래서 “여사님. 동양에서는 용은 제일 높고 귀한 분을 상징합니다. 용상, 용안이라는 말을 들으셨지요?”라고 설명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고맙다.” 하면서 용포를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용포에 적힌 글을 보더니 “아니 대통령선거가 내일인데, 아직 선거도 안했는데 대통령 당선을 경축드린다니?” 정색을 하면서 의아해 한다.

그래서 “저희 조희성 총재님께서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이 한국에 내신 정도령님이신데 이 백성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탄압과 핍박을 가하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김영삼대통령이 정도령님 탄압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오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더니 이희호 여사는 좀 황당해 하면서도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는 말이 기분이 매우 좋아했다. 그러면서 백지에는 “용포 1점 접수함 1997. 12. 17 이희호”

함. 1997.12.17. 이희호.”라고 쓴 친필을 건네주었다(그림 참조).

정도령의 대통령 당선 전언을 듣고 감격해 연신 감사를 표한 김대중

그렇게 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리면 되느냐?”라고 묻는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육중에 계신 조희성님을 찾아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아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난처해한다. 그래서 “마음만 접수시면 왜 안 되겠어요. 지금은 믿지 못하시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정도령님을 인정하시어 꼭 만나 뵙고 싶으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있을 때에 2층에서 김대중 후보가 내려왔다. 그래서 김상욱 회장이 김대중 후보에게 인사를 했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했다. 김 회장과 김대중 후보는 손을 꼭 잡고 한 동안 서로 놓지를 않았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한 상태에서 김상욱 회장은 “조희성 총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육중에 계시면서 금년 1월부터 이번에 대통령이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내일이지만 이미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가서 당선을 경축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김대중 후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꼭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하면서 악수한 손을 놓지를 않았다.

조희성 총재님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다.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에 적극 반대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을 영적으로 지원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했을 뿐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1)

“의인 300명은 하나님의 2차 목적”

이 사람이 의인 300명을 이룬다는 말씀을 한 것은 세계민단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 2차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1차 목적은 삼위일체 완성자가 나오므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노력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지 구세주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벌써 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조류는 80년대부터 세차게 흐르고 있어요. 완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완성자가 구원의 표본이요, 완성자가 구원의 모범인고로 여러분들이 그 모범자를 닮아야 구원이요 그 모범자를 닮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노년행복설계하기 노인의 보건·의료문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이 보건과 의료입니다. 현재의 보건과 의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잘 유지하며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공교육과 가정교육의 시스템, 거기다 사회분위가 애초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돈과 부에 모든 가치와 삶의 목표가 맞춰져 있을 뿐이다 보니 늘그막에 노화와 질병에서 오는 문제로 고통스럽고 불행하기만 합니다.

노인 질환 금전적, 심적 고통 막대

나이 들어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당뇨, 치매, 골다공증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질병은 조기발견이 어렵고, 만성적이며, 많은 노인들이 이들 질환을 복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적,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는데다 대부분 완치불능이라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위의 속담처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됩니다.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는 단순히 의료량(진료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등)과 진료비의 증가, 기존의 노인보건·의료관리체계의 미흡(건강진단, 진단후의 지속적 관리, 재가와상在家床 노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체계,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부재, 예방·건강관리보다는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조직), 노인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등만을 살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가느다란 대통으로 드넓은 하늘을 보고 재는 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오랜 시간 노부모 간병과 부담부담으로 가정이 뒤틀리고, 자신들의 집과 병원을 오가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년을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인이 지역 사회에서 돌봄(요양)을 받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유교적 사회문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낯선 의제입니다. 또한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적 가치관 정립 필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와 나이 들어가는 세대가 다 같이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절도 있고 균형잡힌 삶을 살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습관이 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도 120세나 150세 또는 그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긴 인생을 목표삼고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독도에 무궁화꽃이 피어난다

대안(吳案) 박장락 시인(1960년생)은 2005년 『문학21』에 『봄이 오는 호수』(시)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2006년에 첫 시집 『그대가 그리운 날에는』을 낸 후 월간지 계간지 신문 등에 100여 편이 게재되었다. 맑고 고운 시향을 꿈꾸는 영혼의 시인이 되겠다는 그의 시 한편 ‘독도에 무궁화꽃이 피어난다’를 소개한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홈페이지에 누군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게재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본지 게재를 허락해 주신 박 장락 시인에게 감사를 전한다.

편집자 주

2006년 2월 26일에 <아름다운 시한수>의 게시판(<https://blog.naver.com/pms8206/150002186545>)에 『독도에 무궁화꽃이 피어난다』를 이미 소개하고 있다. 이 시(詩)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을 촉발시킨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땅 끝 땅 모퉁이의 동방 나라에서 의인이 출현할 것이라(사41:1-9)”고 예언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조선이 동방의 등불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에 대안(吳案)은 “독도가 태양처럼 떠오른다”고

했다. 천만년 거친 물살 받아낸 외롭지 않은 서도, 동도어! 백의민족의 염원으로 태양처럼 떠오른다

서도와 동도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의젓한 모암(母巖)으로써 안정되기까지 한민족의 수난사를 대변하며 쉽 없이 부딪쳐오는 무수한 외세의 파도에도 굳건하게 견뎌낸 불굴의 상징!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큰 뜻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천만년 무구(無垢)한 인고의 역사로 한민족 영혼의 등불 되어 독도에 무궁화꽃이 피어난다

이러한 시가 탄생하기까지 시인의 영감은 아마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모진 외세에도 꽃피듯 살아남은 조상의 DNA(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반도에 사는 우리들이 이 시를 읽노라면, 백의민족 속에 면면히 흘러오던 조상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라와 7천만의 대한건아와 열녀로 승화됨을 느낄 수 있다.*

박태선 기자

독도에 무궁화꽃이 피어난다

혼돈(混沌)의 역정(歷程) 그 속에는 역겁의 긴 세월동안 모진 고난을 겪어온 침략의 바람에 뒤범벅 되어도 모암(母巖)은 안정되고 의젓하게 천만년 거친 물살 받아낸 외롭지 않은 서도, 동도어! 백의민족의 염원으로 태양처럼 떠오른다

“弘益人間” 큰 뜻은 겨래의 바소가 되어 태양의 빛으로 떠올라 만민첩의 예지(叡智)와 경륜(經綸)이 살아 숨쉬고 혼동(混同)의 순간들을 뛰어 새로운 기약 했으니 새벽 여명기 이슬처럼 민족의 젓줄로 장엄한 함성으로 울려 퍼진다

유구(悠久)한 속뜻이 어우러져 속으로 속으로만 되짚어 오던 아름다운 독도의 의젓함이여 변하지 않는 불변, 민족의 참 의미는 외세의 뱀 혀바닥 같은 언어에 농락(籠絡) 당해도 천만년 무구(無垢)한 인고의 역사로 한민족 영혼의 등불 되어 독도에 무궁화꽃이 피어난다.